

사라지는 것에 대한 사적(혹은 공적)인 기록

이대범(이하 이) : 2006년 로댕 개인전 이후 2년만의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강홍구(이하 강) : 이번 전시는 형식상으로는 지난 몇 년 동안 찍은 ‘은평 뉴타운’의 사진전이고, 내용상으로는 뉴타운 건설 과정 자체보다는 도대체 뉴타운이 어떻게 과거의 마을을 사라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보려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개발과 뉴타운에 대한 개인적인 언급입니다.

이 : 최근 사진은 아닌 거 같은데, 은평 뉴타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죠?

강 : 처음부터 뉴타운을 염두하고 계획적으로 찍은 것은 아닙니다. 2001년 무렵 불광동으로 작업실을 옮겼어요. 그 이후에 찍었던 사진 중 일부가 2006년 로댕갤러리 개인전 <풍경과 놀다>에서 선 보인 재개발 지역을 다룬 <미키네 집>입니다.

2002년 무렵부터 은평 뉴타운 지역에 흥미가 있었어요. 구과발을 중심으로한 진관동 일대가 서울의 서북쪽 변두리라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도 많았어요. 도대체 서울 같지 않은 지역이어서 이 독특한 분위기를 작품으로 만들면 어떨까하면서 슬렁슬렁 찍고 있었는데, 2002년 갑자기 뉴타운이 발표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결국 그것을 지속적으로 찍게 된 것입니다.

현실이 사진을 편집하다

이 : 의도하지 않은 우연히 찍은 사진이지만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기록사진 비슷한 것이 되었군요.

강 : 그래요. 그래서 든 생각이 “사진을 어떤 종류의 맥락에 집어넣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예요. 이 경우에는 현실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현실이 사진의 위치를 정하고 편집해 버린거죠. 존 택 말이 맞아요. 사진에 정체성이 없다는.

이 : 그런데, 그것은 사진을 찍은 이후의 판단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과거의 사진을 현재에서 뉴타운과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촬영 당시에는 뉴타운과 관련이 없었죠. ‘우연’이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대상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강 : 그래요. 그런 생각은 나중에 든거죠. 앞서서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내가 사는 동네를 구경하는 버릇에서 시작됐어요. 사는 동네가 북한산 바로 아래여서, 북한산도 갔다가, 그리고 구과발 지역에도 갔다가 하면서 동네를 둘러봤죠. 그때는 민족지학적 태도 비슷한 것으로 접근 해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이 나라가 너무 엉망이라 사는 곳 근처에서 얼마든지 의미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평 뉴타운 지역은 도시의 외곽이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농촌 흔적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도 21세기인데도 시간이 누적된 70, 80년대로 보였습니다. 그 안에 뭔가 애깃거리가 있겠다 싶은 거죠. 개인적 취향일 수도 있고.

이 : 계속해서 ‘우연’이라는 어휘가 등장하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우연이 뭐죠?

강 : ‘우연’은 작품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무심하게 봤던 풍경, 광경, 공간들을 지나가다 갑자기 그 뭔가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 우연일테고,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가게 되고 사

진을 찍는다는 게 결국 일종의 필연이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진부한 말이지만 우연도 결국에는 필연 아닐까요.

이 : 촬영 당시는 대상 자체를 현실로 찍었는데, 지금 사진 속 대상은 사라지고 추억 혹은 기억으로 남았군요.

강 : 사진이 원래 그렇지만, 찍을 때는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되고, 노스텔지어(nostalgia)를 유발 시키는 요인이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감성적 호소가 있어 팬츠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점에서 감상주의적 측면이 강화될 수도 있겠다 싶어 우려도 됩니다.

이 : 현재에서 사라진 대상을 담은 사진을 본다는 것은 관람자를 필연적으로 추억의 영역에 편입시키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현실이 추억으로 변하게 하는 근원적 힘에 대한 질문일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무슨 일이 있었기에) 현실이 추억이 되었는가?” 같은 질문 말이죠. 아마도 이 질문은 선생님이 생활인으로서 찍은 사진 가운데 전시 사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 : 이번 전시의 선택 기준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곳이죠. 생활인으로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쓰레기 가득한 폐허가 되어 위치는 남아 있지만, 장소는 없고, 단지 기억만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뉴타운이 가진 수많은 현실과 엮어보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시다.

아주 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 장소들을 봤고, 나는 이 장소들을 좋아했고, 그랬는데, 정말 가버렸다. 사라졌다. 그리고 사라지게 한 힘은 알다시피 뉴타운이라는 이름의 개발 광풍에 가까운 힘이다. 그것들이 어떻게 개인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것을 파괴하고 흔적을 없애버렸는지. 그것을 관객이 이번 작업을 통해 짧은 순간이라도 봐줬으면 했죠.

이 : 그곳의 현실을 모르고 단순히 사라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추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촬영 당시부터 현실을 보고 찍었기 때문에 현실적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했겠죠.

강 : 최근 용산 참사를 계기로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좀 부담이 됩니다. 때문에 이번 작업이 좀 감상주의적 측면에 머무른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일부가 무언가에 의해 강제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보았다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풍경의 죽음

이 : 2006년 개인전에서 ‘미키’라는 대상을 통해 풍경을 완성하고 바라보게 하는데요. 이번 작품에도 그런 대상이 있나요?

강 : 없습니다. 그냥 저 스스로가 관찰자로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오쇠리 풍경>을 찍었을 때와 비슷한 태도입니다. <오쇠리 풍경>은 정말 구경꾼 입장에서 가짜 파노라마의 성격을 강화했었죠. 이후 미키네 집을 찍을 때는 <오쇠리 풍경> 때와 다르게 놀이하면서 발언인 것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철거된 집에서 발견한 오브제를 이용했죠. 이번 전시는 일단 <오쇠리 풍경> 때로 돌아가 제가 보는 것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 그간의 작업을 보면, 선생님은 도시의 변방에 주목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변두리 혹은 도시의 변방은 어떤 의미죠?

강 : 일종의 도시 내부의 ‘내부 식민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식민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착취인데, 변두리에서 이런 착취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명

목아래 원주민을 내쫓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이주민으로 들어와 원주민의 삶을 착취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거대 자본이 큰 이익을 보고, 누군가의 표현을 빌면 나머지는 그 부스러기를 줍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풍경 혹은 공간 자체의 파괴가 망설임 없이 진행됩니다. 길보기에 제 작업이 쇠락한 변두리의 풍경처럼 보이지만, 저는 내부 식민지로서 변두리의 위치와 입장을 풍경에 각인시켜 보여 주고자 했죠.

이 : 은평 뉴타운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죠. 최근 용산 참사를 보면, 은평 뉴타운 지역은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보여요.

강 : 은평 뉴타운 지역은 그린벨트가 많았기 때문에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은평 뉴타운은 뉴타운 사업 초창기 지역이어서 개발에 따른 이득에 대한 환상이 주민들에게 좀 있었던 듯 합니다. 물론 거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양주택 단지 주민들을 비롯해 저항이 있기는 했지만 용산과 같은 격렬한 거부와 참사는 없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현재 은평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율은 낮은 상태입니다. 분양가 문제 때문에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대다수의 원주민들은 우리도 모르는 그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죠.

이 : 원주민이 제외된 상태로 이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도시가 생성된 것이군요. 촬영 당시 원주민들과 사적인 관계도 있었나요.

강 : 물론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되도록 사적관계를 배제하려 했습니다.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내가 그 정도까지 에너지와 능력이 없고, 둘째로 거리를 두고 풍경이 말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접근하면 할수록 개발 행위에 대한 분노와 감정이 복잡해지고 커져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게 되기 때문이죠.

이 : 이번 전시 작품들은 기존 작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강 : 형식적으로 새롭게 시도해본다든가, 접근 방법을 바꿔본다든가, 뉴타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다든가 등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내가 이런 비슷한 작업을 계속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실이 너무나 강력해서 어떤 형식적인 변화보다 그것을 찍어두는데 바빴는지도 모르지요. 아마 찍으면서는 찍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혹은 형식적인 어떤 고려가 무의미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재개발, 뉴타운 등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런 종류의 작업을 마무리 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 :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에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 이번 전시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은평 뉴타운 사진, 둘째, 은평 뉴타운 개발 이전부터 아파트가 들어선 현재까지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슬라이드 쇼, 셋째는 내가 사진을 찍은 위치를 설명해주는 개인적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평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는 말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은평 뉴타운 개발에 대한 설명 혹은 소개 같은 것입니다. 뉴타운 이전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철거와 폐허가 되는 과정,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을 사람들이 한 번 봤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어렸을 적 본 초등학교 사회과 부도에 나오던 일러스트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어떤 장소에서 뭘 찍었나를 보여주는 일종의 농담입니다.

이 :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대를 달리한 작업과 슬라이드 쇼 작업에서 '시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개인적 일상 속에 개발적 폭력이 개입하는 서사가 구축되는 모습이 형상화 됩니다.

강 : 이전 작업들과 다른 점이죠. 하지만, 이것도 우연의 소산이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찍다보니깐, 나중에는 무너져서 없어진 경우도 생기면서 만들어진 산물이죠. 어쩌면 이런 과정을 통해 관객이 서사적 구조를 가진 것처럼 보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을 짧은 순간에 고정시키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짝 확장해 보려는 거죠.

이 : 특정 공간으로 한정 하니깐, 작가의 시선도 보이지만, 그곳의 사물의 삶도 보이면서 그들이 사라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2003년 대안공간 풀의 전시 글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이번 전시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강 :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대상이 사라지면서 풍경의 죽음이 보이는군요.

이 : 예전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 새롭게 무엇인가가 만들어 지면서 새로운 풍경이 만들어 졌는데, 이런 인위적인 새로운 풍경을 보면 어떤 생각 드나요?

강 :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 풍경에 대한 학살 아닐까요. 풍경이 서양의 경우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전원에 대한 향수에서 출현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 그 말은 도시 내부에는 풍경이 없었다는 거죠. 풍경을 죽이면서 풍경에 대한 향수를 만들어 풍경을 발견하는 이러한 과정은 참으로 아이러니죠. 이 아이러니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풍경을 아이러니로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주를 원하면서 자연과 접촉해 놓고 즐기려는 욕망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에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원과 녹지의 확장. 심지어 상업 지구에도 어떻게 하면 자연 친화적인 것을 끌어 들일까 고민하고 있죠. 이러한 인위적 풍경은 자연에 대한 욕망이 풍경 내부에 존재하지 않으니깐, 그것을 인위적으로 철저히 재현하는 거죠. 인위적 풍경이란 것이 길, 나무, 물 등의 세부적 항목을 하나 하나 위치를 지정해 풍경을 제어한 것이죠. 이것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풍경은 아니죠.

이 : 최근 ‘친환경적’ ‘친자연적’이라는 말이 도처에 출몰하는 것을 보면, 인위적 풍경이 우리 삶에 은연중에 그러나 철저히 개입하고 있죠.

강 : 풍경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도 여전히 한계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자본의 증식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이 : 이번 작업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서, 풍경 자체가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 : 유동인구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되도록 사람이 들어간 사진은 배제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이 작업이 지향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 저도 유년 시절을 목동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980년대 무허가 건물이 무차별적으로 부서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된 지금도 개발의 광폭함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강 : 우리나라 개발 지역은 어디나 비슷하죠.

이 : 이번 작업들이 은평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지만 확장해서 보면 한국 근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강 : 그렇죠. 은평 뉴타운은 우리나라 전체 개발을 압축해 놓은 현장 같아 보입니다. 언제나처럼 원주민은 힘이 없죠. 처음부터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설계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원주민에 대한 기본적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 : 은평 뉴타운의 경우 한국적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지난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 : 그렇죠. 그 속도는 자본의 축적도와 비례하지 않나 싶네요. 궁극적으로 자본이 혹은 자본과 결탁한 권력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빠르면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죠. 우려되는 것은 전에도 그랬지만 신도시와 재개발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계획서에는 30년 동안 개발에 소외된 지역, 전원형 신도시 뉴타운 지역이라는 수사가 붙었지만, 핵심은 일정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 시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죠.

이 : 경기도에는 명품 신도시도 등장한다고 하던데요.

강 : 명품 신도시 역시 철저하게 상업적 목적에서 출발한 거겠죠. 원주민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물 대한 배려가 생략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주민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만, 결국에는 그곳에서도 다시 개발되어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 : 당사자를 배제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군요.

강 : 그렇죠. 언제나 그래왔듯이 지금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것은 개발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구경꾼으로서 보여주기

이 : 선생님 작업에서 사진의 의미는 무엇이죠?

강 : 처음부터 사진을 했던 것이 아니라서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빠른 방식으로 이미지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진의 굉장한 강점이죠.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시선처리의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대상과의 거리의 문제죠. <오쇠리 풍경>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전부다 말할 수 없다는 느낌 그리고 그곳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거리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면 부딪치고, 멀리가면 남의 일이 되고, 그래서 구경꾼이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이번 작업에서도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 마지막으로 최근에 젊은 미술가들의 경향 중에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요. 후배들에게 고언(苦言) 한마디 해주세요.

강 : 도시 자체가 이미 일종의 독특한 풍경이 된지 오래니깐, 흥미 있는 작업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도시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맥락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사적인 측면이거나, 이벤트가 일어나는 장소를 다루는 경우는 많은데, 그것들을 맥락화 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적어요. 사적 경험과 사회 전체의 맥락과 접촉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 : 요즘 작업들이 개인적 경험에 너무 치우쳐 있죠. 사적 이야기를 서술한다고 해도 그들이 이미 사회적 존재이기에 그것들 간의 관계를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업 했으면 하는데, 그런 작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작업을 보면서 저는 단순히 눈은 있는데, 작가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 : 욕심 부리자면, 사회적 자아와, 경제적 자아, 예술적 자아가 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강홍구 (사진:권현정)

Kang Hong Koo

사라지는 것에 대한 기록감성시대의 인간 탐구

인터뷰 | 이대범·미술평론가

이대범(이하 이) 2006년 로댕 개인전 이후 2년만의 전시다. 이번 전시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강홍구(이하 강) 이번 전시는 형식상으로는 지난 몇 년 동안 찍은 ‘은평 뉴타운’의 사진전이고, 내용상으로는 뉴타운 건설 과정 자체보다는 도대체 뉴타운이 어떻게 과거의 마을을 사라지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보려한 전시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재개발과 뉴타운에 대한 개인적인 언급이다.

이 은평 뉴타운 사진은 언제 찍은 건가?

강 처음부터 뉴타운을 염두하고 계획적으로 찍은 것은 아니다. 2001년 무렵 불광동으로 작업실을 옮겼다. 그 이후에 찍었던 사진 중 일부가 2006년 로댕갤러리 개인전 <풍경과 놀다>에서 선보인 재개발 지역을 다룬 <미키네 집>이다.

2002년 무렵부터 은평 뉴타운 지역에 흥미가 있었다. 구파발을 중심으로 한 진관동 일대가 서울의 서북쪽 변두리라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도 많았다. 도대체가 서울 같지 않은 지역이어서 이 독특한 분위기를 작품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면서 슬렁슬렁 찍고 있었는데, 2002년 갑자기 뉴타운이 발표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결국 그것을 지속적으로 찍게 된 것이다.

우연은 기록에 의해 필연이 되고...

이 의도하지 않은, 우연히 찍은 사진이지만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기록사진 비슷한 것이 되어버린 건가?

강 그렇다. “사진을 어떤 종류의 맥락에 집어넣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현실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현실이 사진의 위치를 정하고 편집해 버린 것이다. 존택의 말이 맞다. 사진에 정체성이 없다는...

이 그런데, 그것은 사진을 찍은 이후의 판단에서 나온 것 아닌가? 과거의 사진을 현재에서 뉴타운과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촬영 당시에는 뉴타운과 관련이 없었다. ‘우연’이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대상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강 그런 생각은 나중에 들었다. 앞에서 말했지만 처음에는 내가 사는 동네를 구경하는 버릇에서 시작됐다. 사는 동네가 북한산 바로 아래여서, 북한산도 갔다가, 그리고 구파발 지역에도 갔다가 하면서 동네를 둘러봤다. 그때는 민족지학적 태도 비슷한 것으로 접근해볼까 생각도 했었다.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이 나라가 너무 엉망이라, 사는 곳 근처에서 얼마든지 의미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평 뉴타운 지역은 도시의 외곽이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농촌 흔적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도 21세기인데도 시간이 누적된 70, 80년대로 보였다. 그 안에 뭔가 애깃거리가 있겠다 싶었다. 개인적 취향일 수도 있고...

이 계속해서 ‘우연’이라는 어휘가 등장하는데, 선생께서 생각하는 우연이 뭔가?

강 ‘우연’은 작품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다. 무심하게 봤던 풍경, 광경, 공간들을 지나가다 갑자기 그 뭔가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 우연일테고,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가게 되고 사진을 찍는다는 게 결국 일종의 필연이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진부한 말이지만 우연도 결국에는 필연 아닐까.

이 촬영 당시는 대상 자체를 현실로 찍었는데, 지금 사진 속 대상은 사라지고 추억 혹은 기억으로 남았다는 말인가?

강 사진이 원래 그렇지만, 찍을 때는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되고, 노스텔지어(nostalgia)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감성적 호소가 있어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점에서 감상주의적 측면이 강화될 수도 있겠다 싶어 우려도 된다.

<사라지다-은평:내집사랑> 디지털 사진 200×100cm 2009

현실이 추억으로 변하다

이 현재는 사라진 대상을 담은 사진을 본다는 것은 관람자를 필연적으로 추억의 영역에 편입시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현실이 추억으로 변하게 하는 근원적 힘에 대한 질문일 것 같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무슨 일이 있었기에) 현실이 추억이 되었는가?” 같은 질문 말이다. 아마도 이 질문은 선생이 생활인으로서 찍은 사진 가운데 전시 사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이번 전시의 선택 기준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곳이다. 생활인으로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장소가 있다. 현재는 쓰레기 가득한 폐허가 되어 위치는 남아 있지만, 장소는 없고, 단지 기억만이 존재하는 상태…. 그러나 이것을 뉴타운이 가진 수많은 현실과 엮어보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아주 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 장소들을 봤고, 나는 이 장소들을 좋아했고, 그랬는데, 정말 가버렸다. 사라졌다. 그리고 사라지게 한 힘은 알다시피 뉴타운이라는 이름의 개발 광풍에 가까운 힘이다. 그것들이 어떻게 개인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것을 파괴하고 흔적을 없애버렸는지. 그것을 관객이 이번 작업을 통해 짧은 순간이라도 봐줬으면 한다.

이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에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강 전시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은평 뉴타운 사진, 둘째, 은평 뉴타운 개발 이전부터 아파트가 들어선 현재까지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슬라이드 쇼, 셋째는 내가 사진을 찍은 위치를 설명해주는 개인적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은평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잘 모른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은평 뉴타운 개발에 대한 설명 혹은 소개 같은 것이다. 뉴타운 이전의 상태에서 시작해 중간에 철거와 폐허가 되는 과정,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을 사람들이 한 번 봤으면 했다. 그리고 지도는 어렸을 적 본 초등학교 사회과 부도에 나오던 일러스트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어떤 장소에서 뭘 찍었나를 보여주는 일종의 농담이다.

이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대를 달리한 작업과 슬라이드 쇼 작업에서 ‘시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개인적 일상 속에 개발적 폭력이 개입하는 서사가 구축되는 모습이 형상화된다.

강 그것이 이전 작업들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이것도 우연의 소산이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찍다보니까 나중에는 무너져서 없어진 경우도 생기면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 관객이 서사적 구조를 가진 것처럼 보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 하나는 시간을 짧은 순간에 고정시키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짝 확장해 보려고 했다.

삶의 일부가 강제로 사라질 때

이 2006년 개인전에서 ‘미키’라는 대상을 통해 풍경을 완성하고 바라보게 했는데, 이번 작품에도 그런 대상이 있나?

강 없다. 그냥 내 스스로가 관찰자로서 보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오쇠리 풍경>을 찍었을 때와 비슷한 태도다. <오쇠리 풍경>은 정말 구경꾼 입장에서 가짜 파노라마의 성격을 강화했었다. 이후 미키네 집을 찍을 때는 <오쇠리 풍경> 때와 다르게 ‘놀이’이자 ‘발언’인 것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철거된 집에서 발견한 오브제를 이용했다. 이번 전시는 일단 <오쇠리 풍경> 때로 돌아가 내가 보는 것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그곳의 현실을 모르고 단순히 사라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추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선생 입장에서는 촬영 당시부터 현실을 보고 찍었기 때문에 현실적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했겠다.

강 최근 용산 참사를 계기로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좀 부담이 된다. 때문에 이번 작업이 좀 감상주의적 측면에 머무른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일부가 무언가에 의해 강제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보았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 용산 참사를 보면, 은평 뉴타운 지역은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

강 은평 뉴타운 지역은 그린벨트가 많았기 때문에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었다. 그리고 은평 뉴타운은 뉴타운 사업 초창기 지역이어서 개발에 따른 이득에 대한 환상이 주민들에게 좀 있었던 듯 하다. 물론 거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양주택단지 주민들을 비롯해 저항이 있기는 했지만 용산과 같은 격렬한 거부와 참사는 없이 지나갔다. 그럼에도 현재 은평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낮은 상태다. 분양가 문제 때문에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기도 하고. 어쨌든 대다수의 원주민들은 우리도 모르는 그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다.

이 원주민이 제외된 상태로 이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도시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촬영 당시 원주민들과 사적인 관계도 있었나?

강 물론 있었다. 그런데 되도록 사적관계를 배제하려 했다.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내가 그 정도까지 에너지와 능력이 없고, 둘째로 거리를 두고 풍경이 말하게 하고 싶었다. 접근하면 할수록 개발 행위에 대한 분노와 감정이 복잡해지고 커져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사라지다-은평:흰 개> 디지털 사진 220×90cm 2009

풍경의 죽음

이 이번 전시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기존 작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강 형식적으로 새롭게 시도해본다든가, 접근 방법을 바꿔본다든가, 뉴타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다든가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에 내가 이런 비슷한 작업을 계속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실이 너무나 강력해서 어떤 형식적인 변화보다 그것을 찍어두는데 바빴는지도 모른다. 아마 찍으면서는 찍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혹은 형식적인 어떤 고려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재개발, 뉴타운 등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런 종류의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 또한 특정 공간으로 한정해서인지, 작가의 시선도 보이지만, 무엇보다 그곳의 사물의 삶도 보이면서 그들이 사라져 가는 모습이 보인다. 2003년 대안공간 풀의 전시 글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이번 전시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보인다.

강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대상이 사라지면서 ‘풍경의 죽음’이 보였다.

이 예전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 새롭게 무엇인가가 만들어 지면서 새로운 풍경이 만들어 졌는데, 이런 인위적인 새로운 풍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강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 풍경에 대한 학살 아닐까. 풍경은 서양의 경우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전원에 대한 향수에서 출현했다고들 하는데, 다시 말해 그 말은 도시 내부에는 풍경이 없었다는 거다. 풍경을 죽이면서 풍경에 대한 향수를 만들어 풍경을 발견하는 이러한 과정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이 아이러니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풍경을 아이러니로 보고 싶다. 사람들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주를 원하면서도 자연과 접촉해 놀고 즐기려는 욕망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에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자연 친화적인 공원과 녹지의 확장. 심지어 상업 지구에도 어떻게 하면 자연 친화적인 것을 끌어 들일까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 풍경은 자연에 대한 욕망이 풍경 내부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철저히 재현하는 것이다. 인위적 풍경이란 것은 길, 나무, 물 등의 세부적 항목을 하나하나 위치를 지정해 풍경을 제어한 것이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풍경은 아니다.

이 최근 ‘친환경적’ ‘친자연적’이라는 말이 도처에 출몰하는 것을 보면, 인위적 풍경이 우리 삶에 은연중에 그러나 철저히 개입하는 듯하다.

강 풍경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도 여전히 한계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아무래도 자본의 증식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 이번 작업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서, 풍경 자체가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유동 인구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되도록 사람이 들어간 사진은 배제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이 작업이 지향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나도 유년 시절을 목동에서 보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980년대 무허가 건물이 무차별적으로 부서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을 목격했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의 광폭함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강 우리나라 개발 지역은 어디나 비슷하다.

이 이번 작업들이 은평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지만 확장해서 보면 한국 근대화와 맞닿아 있

다.

강 그렇다. 은평 뉴타운은 우리나라 전체 개발을 압축해 놓은 현장 같아 보인다. 언제나처럼 원주민은 힘이 없다. 처음부터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설계에 참여하는 것도 아다. 즉, 원주민에 대한 기본적 고려가 전혀 없다.

이 은평 뉴타운의 경우 한국적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지난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그렇다. 그 속도는 자본의 축적도와 비례하지 않나 싶다. 궁극적으로 자본이 혹은 자본과 결합한 권력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가 빠르면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것은 전에도 그랬지만 신도시와 재개발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계획서에는 30년 동안 개발에 소외된 지역, 전원형 신도시 뉴타운 지역이라는 수사가 붙었지만, 핵심은 일정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 경기도에는 '명품 신도시'도 등장한다고 하더라.

강 명품 신도시 역시 철저하게 상업적 목적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원주민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한 배려가 생략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원주민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만, 결국에는 그곳에서도 다시 개발되어 쫓겨나고 있다.

이 당사자를 배제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강 그렇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지금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삶 전체의 문제다.

<수련자-금강불괴> 디지털 사진 220×90cm 2005~6

구경꾼으로서 보여주기

이 그간의 작업을 보면, 선생은 도시의 변방에 주목하고 있는데, 선생이 생각하는 변두리 혹은 도시의 변방은 어떤 의미인가?

강 일종의 도시 속에 존재하는 '내부 식민지'라고 생각한다. 모든 식민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착취인데, 변두리에서 이런 착취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명목 아래 원주민을 내쫓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이주민으로 들어와 원주민의 삶을 착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대 자본이 큰 이익을 보고, 누군가의 표현을 빌면 나머지는 그 부스러기를 줌는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풍경 혹은 공간 자체의 파괴가 망설임 없이 진행된다. 겉보기에 나의 작업이 쇠락한 변두리의 풍경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부 식민지로서 변두리의 위치와 입장을 풍경에 각인시켜 보여 주고자 했다.

이 선생 작업에서 사진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 처음부터 사진을 했던 것이 아니라서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렵다.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진다. 그리고 그것을 빠른 방식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사진의 굉장한 강점이다.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시선 처리의 어려움이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대상과의 거리의 문제다. <오쇠리 풍경> 작업

을 하면서 그것을 전부다 말할 수 없다는 느낌, 그리고 그곳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거리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아주 어렵더라. 가까이 다가가면 부딪치고, 멀리가면 남의 일이 되고, 그래서 구경꾼이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번 작업에 서도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 마지막으로 최근에 젊은 미술가들의 경향 중에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

강 도시 자체가 이미 일종의 독특한 풍경이 된지 오래여서 흥미 있는 작업이 많이 보인다. 그런데 도시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맥락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사적인 측면이거나 이벤트가 일어나는 장소를 다루는 경우는 많은데 그것들을 맥락화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적다. 사적 경험과 사회 전체의 맥락과 접촉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 요즘 작업들이 개인적 경험에 너무 치우쳐 있다. 사적 이야기를 서술한다고 해도 그들이 이미 사회적 존재이기에 그것들 간의 관계를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업 했으면 하는데, 그런 작업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작업을 보면서 나는 단순히 ‘눈은 있는데, 작가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강 욕심 부리자면, 사회적 자아와, 경제적 자아, 예술적 자아가 결합했으면 좋겠다.

< 이전 다음 >

© 2009 artinculture.kr

Joomla! is Free Software released under the GNU/GPL License.

사용자 ID

비밀번호

기억하기

비밀번호를 잊었습니까?